

집단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조영화 김세경* 천성문
경성대학교

본 연구는 집단예술치료를 기반을 둔 개입이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각 연구별 효과크기가 어떤 연구대상과 프로그램에 의해 달라지는지 조절변인을 탐색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 연령, 성별, 프로그램의 형식, 실시시간, 총 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회기 당 시간이 조절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집단예술치료를 개입으로 한 국내에서 발표된 총 38편(k=128)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술치료를 기반을 둔 개입은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에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그 중 학교생활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효과크기의 이질성 검증에 대한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의 연령, 성별, 프로그램 형식, 주당 회기 수가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변인 중, 연구대상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효과적이고, 남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효과가 더 컸다. 프로그램 형식에서는 음악치료로 개입을 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가 늘어날수록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편향의 가능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에 Trim and Fill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효과크기가 교정되었으나, 교정된 효과크기는 여전히 중간수준 이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예술치료를 기반을 둔 개입이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데 있어 효과적인 개입임을 시사한다.

* 주요어: 집단예술치료, 학교부적응, 학교적응, 메타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학생상담센터 상담교수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Tel: 051-663-5944, E-mail: lotus0418@ks.ac.kr

서론

최근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문제가 학업을 중단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과 스트레스로 꼽히고 있다. 교육부의 보도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현황은 매년 6만~7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교육부, 2014). 특히 학업중단의 원인 중에 주목해야 할 변화가 과거 1990년대 초반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학업 중단의 주요원인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 시기부터는 학업 중단의 원인을 학교부적응으로 보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정규교육 외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부적응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2014). 학교부적응은 개인이 학교 및 학급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적합한 행동을 보이며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생 10명 중 6명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초중고생의 학교부적응 문제는 현재 학업 중단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으며 주요한 문제로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렇게 학교부적응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교가 부과하는 규칙과 학업 그리고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회성, 대인관계기술, 환경과의 조화, 집단생활과 같은 필수적인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에게는 삶의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 및 기회의 상실과 다양한 위협에의 노출 가능성을 의미한다(유성경, 1998).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후일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부적응을 나타내기 쉬우며, 일탈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아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하민정, 2015). 즉,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내에서의 적응 장애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한상철, 2011). 이와 같이 학교부적응은 다양한 심리적 및 적응 장애에 대한 주요 요인이 되고, 후일 성인이 되어서도 삶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부적응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과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초기연구는 학교부적응의 유형과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환경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접근(신혜정, 서영석, 2006; 최혜숙, 이현림, 2003)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구성과 개입효과에 대한 연구(김현성, 2011; 박미정, 2013; 이현주, 2011; 장서운, 손정락, 2012)가 많이 이루어졌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기성장프로그램, 수용전념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의 개입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내었다(김은주, 김갑숙, 2015; 김현성, 2011; 박미정, 2013; 안진형, 2011; 이현주, 2011; 정지현, 손정락, 2014; 채명희, 2006). 그러나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치료를 할 경우, 대상의 특성상 집단 분위기가 침체되고 의기소침한 면이 많으며(김혜경, 2008; 양지원, 김형모, 2015), 대체로 부정적이고 자기비하적인 면이 많다. 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시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과잉행동을 보여 집단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강다혜, 2012; 양지원, 김형모, 2015)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한 분야가 집단예술치료이다. 예술치료는 여러 분야의 예술과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치료로서 기존의 심리치료를 언어와 함께 미술, 음악, 영화, 동작, 놀이, 연극 등과 같은 예술매체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송수경, 2014). 이러한 예술치료를 집단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집단에 적용한 집단예술치료는 국내에서는 1992년에 시작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내담자들에게 정신과 신체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원,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고,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치료 영역이다(정광조, 이근매, 최애나, 원상화, 2009). 집단예술치료는 특히 신체적·정서적·인지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긴장되고 억압되어 있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자각하여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다. 특히, 상담이나 치료적 상황에서 대화를 기피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김동연, 최외선, 2002; 송수경, 2014; 이미영, 2008; 정여주, 2008).

특히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집단예술치료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나 자신의 문제, 생각, 욕구 그리고 감정 등의 표현을 도와 자기 성격을 인식하고 수용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발전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결핍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문선영, 2008). 이와 같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특성과 치료적 요소가 잘 부합되는 집단예술치료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예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선행연구로 김선옥(2011)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 메타분석'의 연구에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선행연구 11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 고등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여, 집단미술치료가라는 단일 매체의 집단 프로그램의 대상별, 구성방법별, 종속 변인별 효과성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동향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미술,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한 집단치료의 효과성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조예지, 2014). 동기가 낮고 비자발적이며, 행동화 경향성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집단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장현덕, 강양구, 이숙희, 2009; 채명수, 2002), 어떤 매체를 활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집단예술치료를 대상으로 그 효과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별연구일 경우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다양한 집단예술치료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미 출판된 많은 개별 연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메타분석은 이에 적절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Hunter & Schmidt, 2004). 이는 메타분석이 개별 연구의 표본들을 통합하여 좀 더 큰 수의 표본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개별 연구들보다 정확한 효과크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Pillemer & Light, 1980; Borenstein,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에게 더욱 효과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5년간 국내에서 실시되었던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예술치료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예술치료 효과를 제시한 분석대상 논문들의 특성과 전체 평균효과크기를 제시하고, 전체 평균효과크기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개별 연구들이 보고하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예술치료의 효과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예술치료를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분석대상 자료

본 연구는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적응의 주요 특성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

교규칙, 학교생활, 일반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분석 대상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PICO(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기준에 근거하여 자료를 검색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P)은 학교부적응을 경험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별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학교부적응, 학습부적응, 교우관계 부적응, 규칙 위반 및 징계를 받은 대상자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중재 방법(I)은 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학교부적응 학생의 주요 특성에 대한 중재기법을 적용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비교집단(C)은 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중재를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중재결과(O)는 학교적응의 주요 특성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생활 및 일반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김아영, 2002; 김용래, 2000; 문은식, 2001; 이미라, 2001)에서의 정의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1> 학교 적응의 주요특성

학교 적응	주요 특성
교사관계	교사에 대한 호감 및 친밀감, 상호작용을 바르게 이해함,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요청하고 조절함을 의미
교우관계	친구와의 상호협조성, 친밀함을 의미
학교수업	학업에 대한 가치와 흥미, 학업유능감, 수업에 대한 집중 및 태도를 의미
학교규칙	학교 규범을 준수하고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 행동의 통제 여부를 의미
학교생활	학교 행사, 특별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학교 환경에 대한 적응을 의미
일반적 적응	기타항목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위의 개념 중 어느 하나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자료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험처치로 최소한 8회 이상 실시하여 중재 전후의 사전·사후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중재효과를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로 제시한 논문들로 선정하였다. 즉, 질적 연구,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연구 등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에서 제외하였고,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표본 수, t 값 등 효과크기의 변환이 가능한 통계치 등을 밝히고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즉, 비중재 연구,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없는 연구 등은 분석 대상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검색의 연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학술 논문 검색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riss.kr>),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 뉴논문(<http://www.newnonmun.com>),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DBpia(<http://www.dbpia.co.kr>)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의 검색 및 선정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초록과 제목을 중심으로 선별
Key Word 검색 : 학교부적응,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수업 부적응, 학습 부적응, 교사와의 관계 부적응, 교우관계 부적응, 학교규칙 준수, 학교환경 부적응, 예술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 영화치료 프로그램, 동작/무용 프로그램
총 (112)편(석·박사 논문 (81)편, 학술지 논문 (31)편)



원문 가용연구 논문 선별
- 독립변인이 예술치료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인이 학교부적응인 논문 - 연구 설계가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사전-사후를 비교한 논문 -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수치들(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F, p 등)이 제시되어 있는 논문
총 (53)편(석·박사 논문 (38)편, 학술지 논문 (15)편)



중복된 논문 선별
(석·박사논문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논문 15개는 학술지 논문 만 선정)



최종 분석 논문 채택
총 (38)편(석·박사 논문 (23)편, 학술지 논문 (15)편)

[그림 1] 자료 검색 및 선정과정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코딩 항목은 연구자, 발행 시기, 출판 형태, 표본 수,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치, 종속변인 명, 연구대상 특성, 연구대상 성별, 연구대상 연령,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구성 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발행 시기는 논문의 출판 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논문 표지에 제시되어 있는 출판 년도와 다를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출판 년도로 코딩하였다. 종속변인 명은 학교적응의 주요 특성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생활 및 일반적 적응으로 범주화하여 코딩하였다. 연구대상 특성은 개별연구의 원문에서 제시한 대로 학교부적응 학생, 학습부적응 학생, 교우관계 부적응 학생, 규칙 위반 및 징계 대상 학생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 여, 혼합으로 구분하였고, 개별연구의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한 후 범주화하여 코딩하였다. 프로그램 명은 분석대상 자료를 탐색

적으로 확인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 기타치료 프로그램(원예, 무용/동작, 영화)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프로그램 실시시간, 총 진행 회기 수, 주당횟수, 회기 당 시간은 개별연구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연속변수로 코딩하였다.

이들 변인들은 각 연구가 갖는 속성에 대한 설명뿐 만 아니라 효과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분석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질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조절변수의 특성에 따라 메타 ANOVA, 메타 Regression을 활용하여 조절변인을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은 Borenstein, Hedges, Higgins 등(2009)가 개발한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version 2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개별 연구결과로부터 산출된 효과크기이며, 효과크기 산출과정에서 동일한 연구에서 다양한 효과크기가 산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총 38편의 연구에서 128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모든 연구 결과에 대해 효과크기는 다수의 연구가 표본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정된 표준화된 평균효과크기인 Hedges' g를 산출하였으며, 95% 신뢰수준(Confidence Intervals: CI)을 계산하였고, 각 효과크기의 가중치는 분산의 역수를 사용하였다(박완주, 박신정, 황성동, 2015; Borenstein, 2009). Hedges' g를 산출한 것은 Cohen's d를 보완한 방법으로 표본이 작을 경우 과대 추정되는 약점을 보완한 효과크기이기 때문이다. 평균효과크기는 각 연구의 연구 방법, 표본, 개입방법 등이 서로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무선평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각 개별연구에서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변인의 하위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전체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할 때는 표본수를 고려한 평균값을 도출하여 이를 단일한 연구로 간주하여 효과크기를 재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조절변인을 분석할 때는 개별적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독립성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Cooper, 2010).

결 과

평균 효과크기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하기 위하여 수집한 분석대상 논문은 총 38편이며, 효과크기로 산출된 것은 총 128개였다.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평균효과크기의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평균 효과크기

전체	<i>N</i>	<i>k</i>	효과크기	SE	하한값	상한값	<i>Z</i>
	2,586	128	.88	.08	.73	1.03	11.73***
교사관계	609	30	.92	.15	.62	1.23	5.97***
교우관계	577	29	.84	.16	.53	1.15	5.33***
학교수업	571	29	.84	.16	.53	1.15	5.33***
학교규칙	433	22	.82	.18	.47	1.18	4.55***
학교생활	200	11	1.07	.26	.56	1.59	4.11***
일반적 적응	196	7	.94	.32	.30	1.57	2.91***

주: *N*-개별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 사례 수, *k*-효과크기 개수, 효과크기-Hedges' *g*값, SE-표준오차, 하한값 상한은 95% 신뢰구간

*** $p < .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에서 나온 총 128개의 효과크기는 .88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66, .82]).

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하위구성요인들에 대한 효과크기는 학교생활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1.07로 가장 높았으며,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65, 1.23]). 다음으로 일반적 적응($ES=.94$), 교사관계($ES=.92$), 교우관계($ES=.84$), 학교수업($ES=.84$), 학교적응($ES=.92$), 학교규칙($ES=.82$)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효과크기의 이질성 검증: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전체평균효과크기의 이질성은 $I^2=68.22\%$ 로 나타났는데, Higgins와 Green(2011)은 I^2 가 50%이상이면 각 연구 간의 효과크기의 분포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질성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주변수에 해당하는 조절변인은 메타 ANOVA로 분석하였고, 연속변수에 해당하는 조절변인은 메타 Regression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변수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사용된 변인에는 연구대상에 따라 특성, 연령, 성별이 사용되었고, 프로그램의 형식이 사용되었다. 연속변수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사용된 변인에는 프로그램 실시시간, 총 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회기 당 시간이 사용되었다.

<표 3> 연구대상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i>N</i>	<i>k</i>	효과크기	SE	하한값	상한값	<i>I</i> ²	<i>Q_b</i>
연구대상 특성	학교부적응	1,850	91	.70	.05	.60	.79	68.50	7.52
	학습부적응	48	4	.49	.28	-.05	1.03	5.17	
	교우관계 부적응	244	12	1.38	.14	1.10	1.66	75.45	
	규칙 위반 및 징계	444	21	.68	.10	.49	.87	54.61	
연구대상 연령	초등학생	1,114	57	1.03	.06	.91	1.16	63.97	14.57***
	중학생	1,024	45	.53	.06	.40	.65	59.94	
	고등학생	448	26	.57	.10	.38	.76	74.69	
연구대상 성별	남자	154	8	1.26	.17	.92	1.60	56.07	34.06***
	여자	240	12	.52	.13	.27	.77	8.26	
	혼성	1,888	94	.89	.05	.80	.99	64.98	
	제시되지 않음	304	14	-.11	.11	-.34	.11	51.44	

주: N-개별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 표본 수, k-효과크기 개수, 효과크기-Hedges' g 값, SE-표준오차, 하한과 상한은 95% 신뢰구간, *I*²-이질성 검증 통계량, *Q_b*-집단 차이

* *p*< .05, *** *p*< .001

연구대상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학교부적응, 학습부적응, 교우관계 부적응, 규칙 위반 및 징계를 받은 학생으로 구분되었고, 교우관계 부적응, 학교부적응, 규칙 위반 및 징계, 학습부적응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12개의 효과크기는 1.38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1.10, 1.66]).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91개의 효과크기는 .70으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60, .79]). 규칙 위반 및 징계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21개의 효과크기는 .68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49, .87]). 학습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4개의 효과크기는 .49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작은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95% CI=[-.05, 1.03]).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개별 연구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Q_b*=7.52, *p*<.10), 연구대상의 특성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하철오, 신

희천, 2014)에서는 유의수준이 $p < .10$ 일 때는 유의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특성 역시 유의한 경향성이 있는 조절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57개의 효과크기는 1.03으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91, 1.1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26개의 효과크기는 .57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38, .76]).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45개의 효과크기는 .53으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40, .65]).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개별 연구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Q_b=14.57, p < .001$), 연구대상의 연령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 여자, 혼성,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었으며, 남자, 혼성, 여자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8개의 효과크기는 1.26으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92, 1.60]). 혼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94개의 효과크기는 .89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80, .99]).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12개의 효과크기는 .52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27, .77]). 성별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에서 나온 14개의 효과크기는 .11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95% CI=[-.34, .11]).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개별 연구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Q_b=34.06, p < .001$), 연구대상의 성별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형식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개별연구에서 프로그램은 미술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 기타(원예치료, 무용/동작치료, 심리극 치료) 프로그램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음악치료 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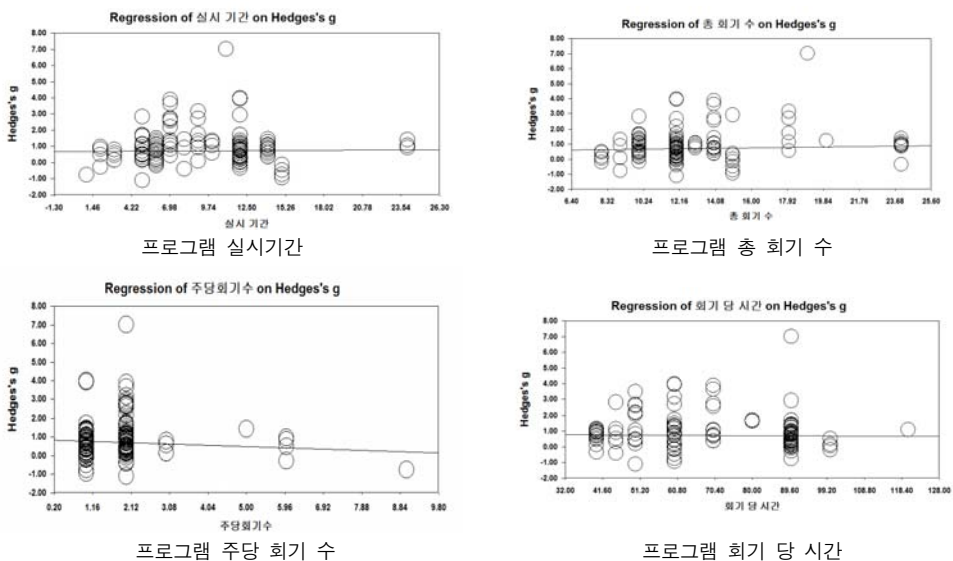
<표 4> 프로그램 형식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i>N</i>	<i>k</i>	효과 크기	SE	하한값	상한값	<i>I</i> ²	<i>Q</i> _b
미술	1,678	83	.80	.05	.70	.89	62.11	32.03***
음악	176	10	1.42	.17	1.08	1.77	79.84	
놀이	448	25	.87	.10	.68	1.05	45.52	
기타	284	10	-.05	.12	-.28	.18	72.09	

주 : *N*-개별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 표본 수, *k*-효과크기 개수, 효과크기-Hedges' *g*값, SE-표준오차, 하한과 상한은 95% 신뢰구간, *I*²-이질성 검증 통계량, *Q*_b-집단 차이

*** *p* < .001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나온 10개의 효과크기는 1.42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1.08, 1.77]). 놀이치료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나온 25개의 효과크기는 .87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68, 1.05]).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나온 83개의 효과크기는 .80으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95% CI=[.70, .89]). 기타(원예치료, 무용·동작치료, 영화치료, 심리극 치료) 프로그램에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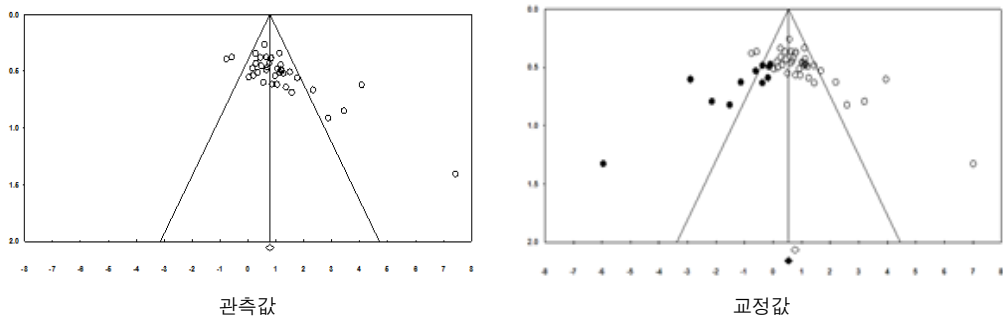
[그림 2] 연속변수에 대한 메타회귀분석

은 10개의 효과크기는 .05로,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95% CI=[-.28, .18]). 프로그램 형식에 따른 개별 연구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Q_b=32.03, p < .001$), 프로그램 형식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속변수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사용된 변인에는 프로그램 실시기간, 총 회기 수, 주당 회기 수, 프로그램 회기 당 시간이 사용되었으며, 메타회귀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프로그램 실시기간은 2주~18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실시기간이 늘어날수록 효과크기는 상승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Z=0.46, 95\% \text{ CI}=[-.01, .02]$), 조절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총 회기 수는 8회기~24회기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회기 수가 늘어날수록 효과크기는 상승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Z=1.32, 95\% \text{ CI}=[-.01, .04]$), 조절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당 회기 수는 1주일에 1회기~6회기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가 늘어날수록 효과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Z=2.11, 95\% \text{ CI}=[-.14, -.01]$),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1회기 당 시간은 40분~120분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회기 당 시간이 늘어날수록 효과크기는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Z=-.56, 95\% \text{ CI}=[-.01, .00]$), 조절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판편향의 교정치 분석결과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초중고생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개별 효과크기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확인하고, 표본오차와 효과크기의 관계를 보여주는 funnel plot(그림 3)을 통해 오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3] 출판편향 결과(funnel plot)

<표 5> 출판편향에 대한 Trim and Fill 교정 값

	k^+	ES_r	95% CI	Q 값
관측값		.88	[.62, .91]	123.45
교정값	11	.54	[.41, .67]	228.74

주. k^+ 는 교정될 연구임.

그림 3과 같이 관측값에 대한 funnel plot은 시각적으로 좌우대칭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평균의 왼쪽 방향으로 몇몇 연구들, 특히 표본크기가 작은 연구들이 누락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출판편향이 의심되는 경우 그 심각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Trim and Fill(Duval & Tweedie, 2000)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관측값 funnel plot에서 대칭이 되지 않은 효과크기들을 제거한 후(Trim), 남은 효과크기들만으로 새로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이어서 새 평균효과크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누락되었다고 가정하는 연구들로 채우는(Fill) 방식이다. Trim and Fill 방식에 따라 그림 3과 표 5와 같이 교정값 funnel plot의 왼쪽에 11개의 효과크기(검은점)가 채워졌으며, 교정된 평균효과크기는 .54로 산출되어 관측된 평균효과크기 .88보다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정된 평균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포함된 연구에 출판편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 연구 결과를 반복할 정도의 심각한 오류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면,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도 있으므로, 앞의 표 2에서 제시된 평균 효과크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의심하여 평균 효과크기가 약간 작아질 수도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38편, 산출된 128개의 효과크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예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부적응 개선을 위한 국내 집단상담 성과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채명희, 2006)과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김선옥, 2011)에서 중간효과크기 이상으로 나온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

생들은 발달적으로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충분히 자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기비하적인 특성이 있어 집단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시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과잉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강다해, 2012). 그러므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집단예술치료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고 표현하며, 집단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하위 영역들에 대한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학교생활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반적 적응,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적응, 학교규칙 순으로 나타났고 Cohen(198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기준에 의하면 모두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치료영역에 따른 집단 미술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메타분석(김선옥, 2011)에서 학교생활적응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가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와 일맥상통 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 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문제의 개선과 학교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이고, 학교적응의 주요 영역인 학교생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 규칙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집단 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주변수에 대한 조절변인을 연구대상의 특성, 연령, 성별로 분석하였고, 프로그램 형식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연속변수에 대한 조절변인은 프로그램 실시기간, 프로그램 총 회기 수,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 프로그램 회기 당 시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대상의 연령, 연구대상의 성별, 프로그램 형식,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가 집단예술치료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질성의 원인이 되는 조절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에 대한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효과크기는 Cohen(1988)의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큰 효과크기, 고등학생, 중학생은 중간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의 시기가 가정으로부터 나와 집단 속에서의 사회화 훈련이 시작되는 최초의 시기로(조대경, 김기중, 이관용, 1983),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이어지는 상급 학교에서의 생활을 비롯하여 인간관계에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되므로,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 집단에서의 적응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김순희, 2006).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학령기에 비해 초등학생 학교부적응자들을 위한 예술치료적 개입이 가장 효과가 큰 것을 시사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형식을 탐색적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기타(무용/동작, 원예, 영화, 심리극)로 분류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놀이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순으로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Cohen(1988)의 효과크기 기준에 의하면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 모두 큰 효과크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악치료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음악이 학생들에게 가장 선호되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김혜경, 2008; 서승미, 2005)이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송주승, 정혜명, 2010)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음악이 학생의 문제 영역에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예술치료의 최근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음악치료가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사 이코드라마·연극치료와 함께 학생들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치료기법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송수경, 2014). 또한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음악치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와 교우 간 관계 속에서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고, 학습과 학교규칙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리적 긴장과 불안, 절망, 불평,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음악치료는 감정을 다루기 위한 좋은 배출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는 학생들이 보다 성숙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통제하도록 도와, 학교에서 자신의 욕구불만이나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안진형, 2011). 이를 종합하면 집단음악치료는 주위환경에 대한 부적응으로 심리·정서적으로 혼란을 경험하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내면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접근이 되므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시 음악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프로그램 주당 회기 수는 1주일에 1회기~6회기로 이루어졌으며, 주당 회기 수가 늘어날수록 효과크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당 회기 수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변인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주당 1회기로 진행할 경우 주당 2회기로 진행할 때보다 더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다(박혜정, 2008; 김선옥, 2011). 따라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1주일에 1회 정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로그램 실시기간과 총 회기 수에 대한 분석 결과 프로그램 실시기간과 총 회기 수가 늘어날수록 효과크기는 상승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선행연구(김선옥, 2011)에서도 프로그램 총 회기 수에 대한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조절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예술치료를 실시하였을 경우 집단장면에서의 자기표현이나 상호작용은 향상되어 학교에서의 교사관계나 교우관

계에 대하여는 개선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집단장면 외에서 직접 겪어야 할 학교수업이나 규칙준수와 같은 학교생활에 큰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짧은 집단회기를 통해서만 한계가 있다 (김은주, 김각숙, 2015)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프로그램의 실시기간과 총 회기 수가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은 아니지만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들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돕기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학교부적응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 예술치료를 개발하고 실시 할 때,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효과 있는 처치특성 변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3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효과크기를 산출함에 있어 이 연구물들의 질을 평가할만한 평가기준이 미비하여 논문의 질에 따른 가중치 적용기준을 확보하지 못함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논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기준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 온라인상에서 원문을 구하기 어려운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만약 제외된 논문의 연구결과가 포함되었을 경우 전체 효과크기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교부적응 초·중고생 대상 집단 예술치료의 효과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직후의 성과만 확인되었다. 하지만 학교부적응의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의 여부도 문제 개선의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추후평가를 포함하는 연구물이 증가되어 정확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집단 예술치료는 대상의 특성과 문제의 정도에 따라 예방, 치료, 성장의 목표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예술치료를 분석 대상으로 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예방, 치료, 성장 각각에 대한 효과 변인이 연구되어 진다면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도 있으므로, 평균 효과크기가 약간 작아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와 같이 출판편향이 발생하는 것은 효과크기가 적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덜 출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조용래, 노상선, 조기현, 홍세희, 2014). 그 결과가 설사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도 연구가 잘 설계되고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없이 수행되었다면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출판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근거기반 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표시된 논문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참고논문임.
- *강경선 (2014). 무드조절 전략을 기반으로 한 음악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부정적 무드조절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0(4), 97-119.
- *강다해 (2012). 영화를 활용한 학교적응력 향상 집단상담이 학교부적응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현주, 김영희 (2013). 예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85-203.
- 교육부 (2014). *학업중단학생 현황조사*. 서울: 교육부.
- *김귀화 (2015). 긍정심리중심 집단미술치료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연, 최외선 (2002). *아동미술치료*. 서울: 중문출판사.
- *김말숙 (2004). 놀이를 통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 (2014). 집단게임놀이치료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고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0(3), 111-130.
- *김민경, 최은영 (2003). 집단미술 활동이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7(2), 59-74.
- 김선옥 (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영, 박부진 (2011).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아동과 권리*, 15(3), 455-479.
- *김순희 (2006). 놀이중심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희 (2007). 놀이 중심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원 (2014).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지능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2002). 학업동기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은선 (2008).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 지능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김갑숙 (2015).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1(2), 179-204.
- *김인, 신성숙 (2012). 사회복지시설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2), 47-70.
- *김인선 (2009).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 인간중심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치료연구, 9(2), 1-31.
- *김재신 (2008). 인지행동 놀이치료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2009).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학교부적응 청소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성 (2011).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여중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1), 1-14.
- 김혜경 (2008).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선영 (2008). 통합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예술치료연구, 8(1), 275-301.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2005). 놀이 중심의 인간관계개선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 (2005). 학교부적응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연구-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성 발달을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 (2013). 영상매체 활용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배향 (2005).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립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4(1), 85-98.
- 박완주, 박신정, 황성동 (2015). 한국 학령기 ADHD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중재의 효과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2), 169-182.
- *박인숙, 이현림 (2008).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고립아동의 우울성향,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5(3), 411-430.
- 박혜정 (2008). 청소년 미술치료에 대한 메타분석.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승미 (2005).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경 (2014). 청소년 대상 예술치료 연구 동향: 최근 10년을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10(3), 155-179.
- 송주승, 정혜명 (2010). 청소년의 음악적 취향과 인식에 관한 현황 조사 연구: 18세-24세를 중심으로. 음악연구, 45, 115-130.
- *신지혜 (2010). 부적응아동의 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효과.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혜정, 서영석 (2006). 아동, 청소년 상담: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 중, 고)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 간의 구조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7(1), 117-130.
- 안진형 (2011). 음악치료와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특별 수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 (2008).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지원 (2014).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사전사후 비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지원, 김형모 (2015).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661-673.
- *오순혜 (2013). Ulman의 미술치료 원리를 적용한 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화 (200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숙 (2010).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이 중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1998). 청소년 정신건강과 감성력 실태조사 및 제고방안 개발: 청소년 재능 발달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98, 1-181.
- *유소희 (2015).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학습부진 청소년의 학습동기와 학교적응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화용 (2009).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이 부적응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홍식 (2010). REBT 집단상담을 도입한 원예치료가 학교생활 부적응 중학생의 충동성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근매 (2011). 예술심리치료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2), 59-81.
- 이미영 (2008).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나 (2011).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조절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 (2001).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1).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의 학교생활적응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의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11), 31-60.
- 장서운, 손정락 (2012). 수용전념 치료(ACT)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분노, 문제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4), 1059-1076.
- 장현덕, 강양구, 이숙희 (2009). 학교부적응과 예술심리치료.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 2009(1), 58-74.
- 정광조, 이근매, 최애나, 원상화 (2009). 예술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정여주 (2008). 통합예술치료가 인터넷중독 고교생의 인터넷 사용조절과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5(3), 555-570.
- *정주경, 정여주 (2008). 집단미술치료가 여고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교육의 이론과 실천, 13(2), 219-236.
- 정지현, 손정락 (2014). 긍정 심리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99-117.
- *정혜련 (2009). 심상표현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 중학생의 적응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대경, 이관용, 김기중 (1984). 정신위생.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조예지 (2014).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 관련 연구동향 분석.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래, 노상선, 조기현, 홍세희 (2014). 우울과 불안증상에 대한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개입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4), 903-931.
- *채명수 (2002). 심리극 집단상담이 대도시 주변지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명희 (2006). 학교적응을 위한 국내 집단상담 성과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재학 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숙, 이현림 (2003).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01-216.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2014년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여성가족부.
- 하민정 (2015). 상담실 내담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 접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철오, 신희천 (2014). 상담자,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작업동맹이 상담회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79-901.
- *한국화, 정여주 (2009).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 119-135.
- *한미희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9(3), 293-314.
- 한상철 (2011). 학교부적응과 중도탈락: 현황 및 대처방안. *청소년행동연구*, 16, 39-65.
- *허정선, 전순영 (2013).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0(1), 187-213.
- *홍소정 (2015). 우쿨렐레 연주 중심 집단음악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유경 (200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0(3), 379-407.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Chichester. UK: Wiley.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oper, H. M. (2010).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A step by step approach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Duval, S., & Tweedie, R. (2000).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56(2), 455-463.
- Estrella, K. (2005). *Expressive therapy: An integrat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Higgins, J. P. T., & Green, S. (2011).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Cochrane Book.* Southern Gate: Wiley & Sons Ltd.
- Hunter, J. E., & Schmidt, F. L. (2004). *Methods of meta-analysis*. Thousand Oaks, Calif.: Sage.
- Knill, P. J., Levine, E. G., & Levine, S. K.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expressive arts therapy*. London: Jessica Kingsley.
- Pillemer, D. B., & Light, R. J. (1980). Synthesizing outcomes: How to use research evidence from many stud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2), 176-195.

[원고접수일: 2016. 03. 30. / 수정원고접수일: 2016. 06. 08. / 게재결정일: 2016. 11. 04.]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Group Arts Therapies Based Intervention on School-Maladjusted Youth to School Adaptation

Cho, Younghwa Kim, Seikyung Cheon, Seongmoon

Kyungso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using a meta-analysis, to estimate effect sizes(ESs) of arts therapies-based intervention on school-maladjusted youth to school adaptation. In this analysis, several moderators possibly related to the ESs were also explored and tested. The moderators examined here included participants' character, gender and age, intervention program's form, runtime, total session, weekly session, time per session. Meta-analysis was performed using 38(k=128) studies of group arts therapies on school-maladjusted youth,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from 2000 till 2015. Results showed that group arts therapies on school-maladjusted youth was largely effective for school adaptation, especially showed large effect to school life. For heterogeneity, moderator analysis was performed, participants' gender and age, intervention program's form, weekly session were significant moderator. Among moderator, studies using elementary schoolchild were most effective and only male samples showed largest values. As for the program, music therapy intervention program were the most effective and as weekly sessions goes by the values grew smaller.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publication bias in our meta-analyses, the estimated ESs were corrected using Trim and Fill method. However, the corrected values can be still interpreted as moderate, indicating that arts therapies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adjusting to school of school-maladjusted youth.

Key words: group arts therapies, school maladaptation, school adaptation, meta analysis